격 려 사

김 종 갑
특 허 청 장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학생 여러분과 지도 교사, 학부모님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특히, 이번 전시회의 공동 주최자인 소년 조선일보사 권문한 편집국장님, 그리고 발명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여러 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 뜻 깊은 시상식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다른 창의력과 도전정신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학생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전시회에 훌륭한 작품을 선보인 참가학생 모두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21세기 기술선진국의 미래를 밝혀줄 발명꿈나무들의 큰 축제인 『제18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를 맞이하여 발명과 발명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의지를 다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전시회를 둘러보고, 전시된 작품들 마다 학생 여러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려는 진지한 노력에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이러한 창의력과 도전정신은 장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줄 것이고 기술선진국, 과학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커다란 발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랑스런 발명꿈나무 여러분!

이번 전시회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뛰어난 창의력과 도전정신에 자부심을 갖고, 이를 계속 발전 시켜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기둥으로 우뚝 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디슨도 전구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 9,999번의 실패를 거듭하였지만, 그것을 실패가 아니라
전구가 안 되는 이치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값진 성공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과 분발을 당부합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학부모님,
그리고 지도교사 여러분!

그 동안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생들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심어주고 남다른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나라 발명교육을 이끌어가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발명은 소수의 천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계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우리 학생들 누구나 훌륭한 발명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학부모와 지도교사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발명꿈나무들이 장차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세계적인 커다란 재목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자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허청에서도 창의적인 발명인재양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뜻깊은 시상식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가 자랑스런 발명꿈나무들이 무한한 꿈과 희망을 펼쳐나가는 힘찬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